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에서도 ITU를 비롯한 10여 개의 국제 · 지역 · 국가 표준화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 전문가양성에 투자를 지속한 결과, 국제표준화기구인 ITU 및 JTC1에서 미국 · 일본 · 영국 등에 이어 높은 의장단 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OMA, WiMAX포럼, 3GPPs 등 주요 세계사실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수임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고서 반영 건수도 ITU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2배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절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와 단체표준 개발

1.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구성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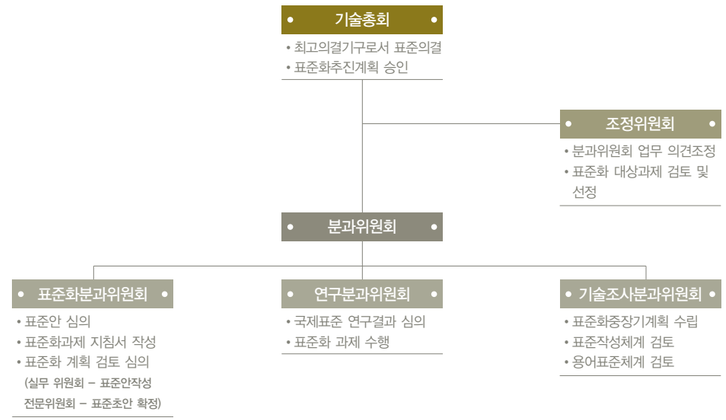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구성

TTA는 1989년 5월,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표준화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였으며, 최초의 표준화위원회는 통신업계, 제조업계, 연구소, 학계 관계자 17명으로 구성하였다. 표준화위원회는 이후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총회, 통신표준총회, 정보통신표준총회로 그 모습을 바꾸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다.

• 제1차 표준화위원회 | 1989.06.08

표준화위원회는 1989년 6월 8일 제1차 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산하조직인 3개 분과위원회, 23개 실무위원회 설치를 승인하며 본격적인 표준화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1년 5월부터 1994년 12월까지는 기술총회가 TTA표준 제정조직으로서 행보를 이어갔다. 기술총회의 시발점이 된 것은 1990년 12월 28일 개최된 제4회 이사회에서였다. 정관 제26조 위원회에 관한 조항에서 표준화위원회를 확대 · 발전시킨 형태의 기술총회를 신설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1년 5월까지 46명의 위원 구성을 마치고, 5월 31일 제1차 기술총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1991년 표준화위원회〉

법정기구로 승격된 TTA는 1992년 9월 24일에 개최된 제1회 이사회에서 기술총회 운영세칙을 변경하여 ITU위원회 산하조직을 기술총회 산하로 편입시켰으며, 실무위원회 수준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과제에 대해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조정위원회 산하의 기획조정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수준의 상설위원회로 승격시켰다.

1994년 3월에는 표준화관련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다. TTA는 1994년 초까지 국내외 정보통신 표준화 활동을 위해, 기술총회 산하에 국내표준 제정을 위한 '표준화분과위원회'와 국제표준연구를 위한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를 이원적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국내외 표준화활동 상호연계성 결여, 상향식(Up-Stream) 및 하향식(Down-Stream) 활동 취약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조직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1월과 2월 조정위원회 및 기획조정분과위원회 합의를 거쳐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서면으로 기술총회를 개최, 표준화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신설을 골격으로 하는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던 것이다.

• 제1차 기술총회 | 1991.05.31
•• 법정기구 승격 후 개최된 제1회 이사회 | 1992.09.24

〈1994년 표준화위원회〉

1994년 12월 제정 고시된 전기통신표준화지침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통신표준총회가 전기통신 분야의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995년 5월 서면의결로 진행된 TTA 제14회 이사회에서 총회 및 위원회 명칭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때 기존의 기술총회는 통신표준총회로, 조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분과위원회는 연구위원회로, 연구 및 실무위원회는 실무작업반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통신표준총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실무작업반 등 총 61개의 위원회가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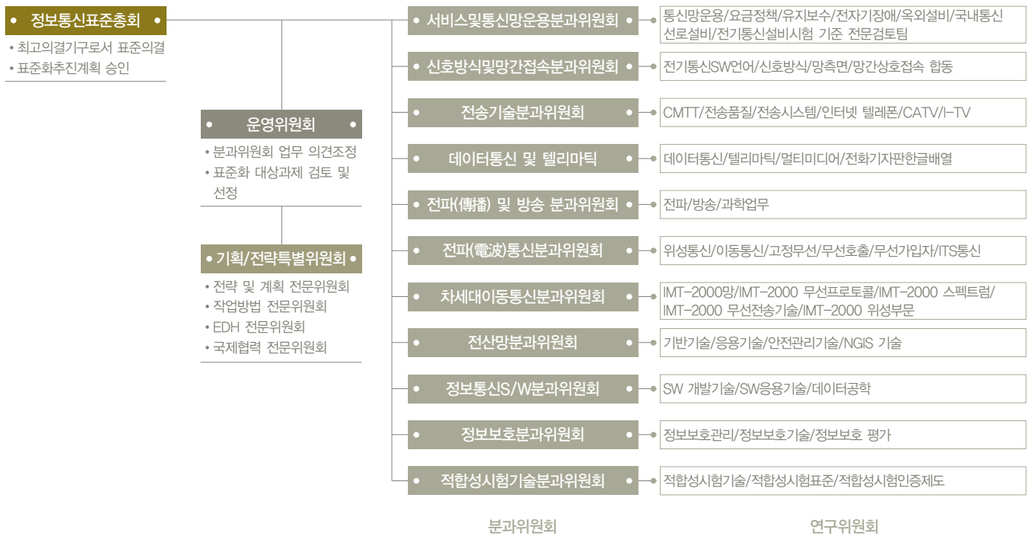
〈1995년 표준화위원회〉

1996년에는 통신표준총회, 운영위원회, 11개 연구위원회, 49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었고, 특히 운영위원회에 기획 · 전략 특별위원회, IPR 특별위원회, 국제협력 특별위원회, 적합인증 특별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위원회간 조정이 필요한 문제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 처리하도록 했다.

1997년 5월 제정 고시된 정보통신표준화 지침에 따라 단체표준 제정권과 함께 심의기구인 정보통신표준총회의 신설과 단체표준의 부활은, 오늘날 TTA 조직의 기본 골격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 표준화 각 위원회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표준제정 작업은 물론 표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에 기획 · 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했으며, 전산망 분과위원회, 정보통신

• 제9차 운영위원회 | 1997.09.04

소프트웨어 분과위원회, 정보보호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같이 새롭게 업무가 추가된 전산망 분과의 표준화위원회가 협회 내에 구성됨으로써 정보통신 전 분야로의 업무 확대에 상응하는 조직정비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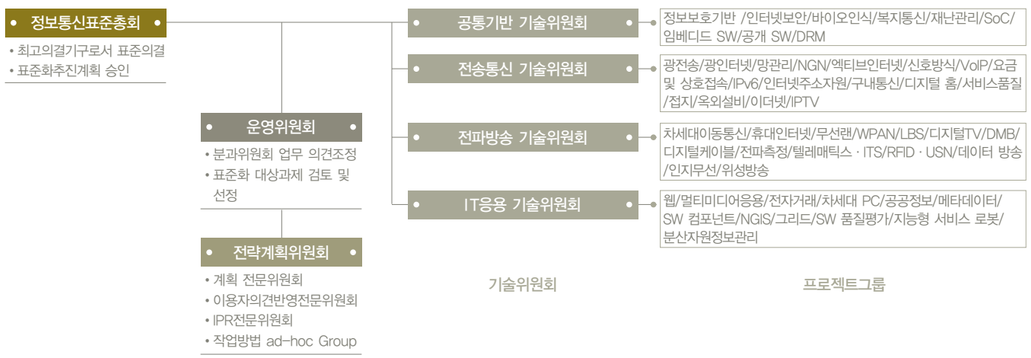


〈1997년 표준화위원회〉

1999년에는 분과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연구위원회를 연구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프로젝트그룹을 도입하는 조직개편을 수행하였다. 이때의 프로젝트그룹은 복합적인 요소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 단위의 한시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써 기술위원회와 같은 급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1999년 표준화위원회〉

2003년 12월에는 IT기술의 통합 및 융합되는 발전 추세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위원회의 조직 개편작업을 단행하였다. 정보통신 표준제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정보통신표준총회가 위치하고 운영위원회 아래에 전략계획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공통기반(TC1) · 전송통신(TC2) · 전파방송(TC3) · IT응용(TC4) 등 4개의 기술위원회와 그 산하에 49개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토록 한 것이다.



〈2004년 표준화위원회〉

이때 개편된 조직은 2007년 12월, 다시 한 번 큰 폭의 개편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말에 단행된 조직개편은 중점 표준화 이슈가 변화하면서 SW, 방송 등의 전문분야 기술위원회 신설요구가 도출됨에 따라 제5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의의 의결로 이루어졌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기반 소프트웨어, 방송, IMT(4G), 정보보호 분야가 점증되는 표준화 수요를 수용하여 독립적인 기술위원회로 신설되었고, 전송통신, 전파통신, IT응용 기술위원회는 기존 조직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의 조정이 있었다.

• 정보통신표준총회 | 2007.12.26

2008년 6월 현재 TTA는 정보통신표준총회(TA)와 운영위원회(CC), 전송통신 기술위원회(TC2) · 전파통신 기술위원회(TC3) · IT응용 기술위원회(TC4) · 정보보호 기술위원회(TC5) ·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위원회(TC6) ·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7) · 방송 기술위원회(TC8) 등 7개의 기술위원회와 그 산하에 58개의 프로젝트 그룹과 59개의 실무반 ·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6월 현재 표준화위원회〉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의 주요 활동 실적

1991년 5월 활동에 들어간 기술총회는 1992년에 1회(3차)의 임시 기술총회와 2회의 정기총회(4차, 5차)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주위 환경 및 기술 발전에 대처하기 위해 산하 분과위원회의 조직을 일부 변경하고, 기술총회 운영세칙도 변경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 특례 조항도 신설하였으며, 잠정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발한 표준화 과제 추진 활동의 결과로 TTA 표준 제정 57건, 개정 2건, 잠정표준 제정 4건을 채택하였다.

1993년에는 2차례의 기술총회 개최를 통해 조직과 기술총회 운영세칙을 보완하였으며, TTA 표준 제정 71건, 개정 2건, 잠정표준 6건을 채택하였다. 이때 승인

• 제3차 기술총회 | 1992.02.27

된 TTA표준들은 국가표준으로 건의하였다.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 ITU 위원회 산하의 ITU-T 및 ITU-R 분과위원회를 기술총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편입시켰고, 조정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하던 기획조정소위원회를 기획조정분과위원회로 격상시켜 산하에 지적재산권(IPR) 실무위원회를 두게 함으로써 그 업무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1994년에는 국내표준화 부문과 국제표준화 부문의 통합운용체제로 업무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술총회 운영세칙의 개정으로 총 9개 분과위원회와 30개 연구위원회가 활동하였다. 표준 제정 활동으로는 표준 58건, 잠정표준 2건, 기술보고서 1건, 지침 2건을 채택하였으며, 승인된 TTA 표준 중 58건을 국가표준으로 건의하였다.

기술총회는 1994년 12월 고시된 전기통신표준화지침에 따라 1995년 5월 통신표준총회에 그 역할을 넘기고 폐지했다.

1997년 5월, TTA의 단체표준 제정권이 부활됨에 따라 표준심의기구로 신설된 정보통신표준총회는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확장에 상응하는 정보통신표준화 각 위원회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제정된 표준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1997년 6월까지 정보통신표준총회 위원을 구성하여 7월 3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이 해에 정보통신표준총회 2차례, 운영위원회 4차례, 12개 분과위원회 49차례, 50개 연구위원회 251차례 등 모두 3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듬해인 1998년까지 정보통신표준총회를 통해 제정된 정보통신단체표준 제 · 개정 활동 건은 213건 이었으며, 16건을 개정하고, 73건의 한국정보통신 표준 제정과 5건을 개정 건의하였다.

1999년에는 정보통신 단체표준 125건을 제정하고 5건을 개정하였으며, 정보통신 표준화과제 65건을 선정하고 45건의 폐지와, 1건의 국가표준 채택을 건의하였다. 특히, 이 해에 TTA 표준 중 가장 많은 표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표준' 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표준 유지보수 및 향후 중점 추진분야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조사 및 TTA 웹을 통한 표준 다운로드 통계분석 작업이 처음 이루어졌다.

2000년도에는 정보통신단체표준 528건을 제정하고 10건을 개정하였으며 제정표준의 누적 건수는 1,192건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까지 누적 건수가 총 633 건이었던 것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IMT-2000 관련 3GPPs의 표준규격을 영문단체표준으로 채택한 결과이다. 한편, 표준 제 · 개정 5년이 경과한 표준에 대해 표준품질의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체계 확립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정보통신 표준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표준의 활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표준의 유지보수 추진에 반영하여 표준의 실효성 측면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사실표준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10개 민간 정보통신 포럼을 선정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표준화 과정이 시장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구내통신 분과위원회 | 1993.05.11
•• 제1차 정보통신 표준총회 | 1997.07.03
•••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연구발표회 | 2000.03.08

2001년도에는 정보통신단체 표준 494건을 제정하고 3건을 개정하였으며, 그 중 총 346건의 IMT-2000 관련 3GPPs의 표준 규격을 영문 단체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이때 주목할 점은 휴대단말기 입출력 단자 접속표준 및 시험표준, 인터넷 키워드표준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표준이 다수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홈게이트웨이 표준, FM고속데이터방송 표준, ITS 통신서비스 관련 표준 등이 제정되었다. 조직개편 작업도 이루어져 표준총회 산하에 총 11개 기술위원회와 2개 프로젝트 그룹으로 총 13개 표준화위원회를 두었으며, 운영위원회 산하에 3개 특별위원회와 2개 ad-hoc Group을 구성하였다.

• IMT-2000 표준교육 | 2001.11.12

2002년도에는 정보통신 단체표준 511건을 제정하고 152건을 개정하였으며, 채택된 주요 표준 중 IMT-2000관련 3GPPs의 표준규격 총 614건이 영문 단체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주요 표준으로는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 비접촉형 전자화폐 판독기용 표준 SAM 규격, 숫자를 통한 무선인터넷 접근체계, 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표준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 밖에 휴대전화단말기 충전구조 표준 및 시험표준과 번호이동성표준이 개정되었다.

2003년도에는 정보통신표준총회를 4회, 운영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정보통신 단체표준 599건을 제정하고 253건을 개정하였으며, 제정 표준 중 총 6건을 국가표준으로 채택 · 건의하고, 4건의 기술보고서를 제정하였다. 또한 IMT-2000 관련 등 총 708건은 영문 단체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주요 단체표준으로는 MPLS 관련 표준, 주거용 기술표준, VDSL 기술표준,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표준, 5.8GHz DSRC 시험규격, 블록 암호 알고리즘 SEED의 운영모드 등이 있다. 한편, 표준화위원회를 4개의 기술위원회로 통합하고 기술위원회 산하에는 44개의 프로젝트그룹을 운영토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승인하였다.

2004년도에는 정보통신표준총회를 6회, 운영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정보통신

• IPTV 표준기술 워크숍 | 2006.11.24
•• 제7차 한 · 중 · 일 IT표준협력회의 | 2007.04.09

단체표준 총 354건을 제정하고, 214건을 개정하였으며, 제 · 개정 표준 중 총 16건을 국가표준으로 제 · 개정 건의하고, 9건의 기술보고서를 제정하였다. 한편 총 213건의 수시과제를 채택하였으며, 기술추세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한 표준화과제 총 53건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RFID/USN 및 데이터방송 분야 등의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화를 위해 해당 분야 프로젝트그룹을 신설하였다. 주요 표준으로는 2.3GHz 휴대인터넷 표준, 지상파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표준, XML 표준 등이 있다.

2005년도에는 정보통신표준총회를 4회, 운영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정보통신단체표준 총 886건을 제정하고, 236건을 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표준화를 위해 정보통신표준화 운영 요령을 제정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이해관계인이 제안한 총 265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를 채택하고 기술 추세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한 표준화과제 총 43건을 폐지하였다. 특히, 재난관리 분야에서 긴급 상황이나 재난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기술로 한국형 디지털 TRS(TETRA) 기본표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TTA 표준인 와이브로(WiBro™) 물리계층 규격을 국제표준인 IEEE 802.16에 반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주기가 단축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신기술이 출현함에 따라 DRM, 지능형서비스로봇 프로젝트그룹 등을 신설하여 총 49개 프로젝트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신기술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6년도에는 정보통신표준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4회씩 개최하여 정보통신단체표준 총 421건을 제정하고 250건을 개정하였으며, 총 36건을 국가표준으로 제 · 개정 건의하였다. 또한 총 524건을 신규 표준화 과제로 채택하였으며, 기술추세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한 표준화과제 총 80건을 폐지하였다. 한편, 신규 분야의 효율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해 IPTV, 차세대PC, Cognitive Radio, 위성방송 등의 프로젝트그룹을 신설하였다. 주요 표준으로는 본인 확인서비스 중복가입 확인정보,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지상파DMB 교통여행정보 서비스 표준 등이 있다.

2007년도에는 총 4회의 정보통신표준총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단체표준 672건을 제정하고 214건을 개정하였으며, 79건의 표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기술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조직을 7개 기술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운영위원회를 총 7회 개최하여 435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VHO, u-Health 등 신규 기술 분야 표준화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그룹을 새로 신설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프로젝트그룹 중 일부를 조정하였다.

이처럼 TT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보통신표준총회와 운영위원회는 IT 기술의 급속한 진화 및 융 · 복합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IT 전 분야의 표준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표준을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WiBro™, DMB, RFID, 홈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난통신/방송 표준과 같은 공익증진을 위한 표준화, IPTV, 인지무선(Cognitive Radio)과 같은 선도기술 표준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TTA의 표준화위원회가 잦은 변화를 갖는 이유 역시 시장의 요구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 제1차 표준화위원회 | 1989.06.08
•• DMB EXPO 2004에서 DMB 시연 | 2004.12.17

2. 정보통신단체표준 현황

단체표준은 산업체 · 연구소 · 기타 이해관계인이 생산업체와 수요자와의 의견을 참작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표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은 1989년 6월 8일 제정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통신절차'에 대한 표준이다. TTA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통신절차의 표준 채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체표준 제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단체표준은 전기통신표준화 지침의 제정으로 1995년을 기해 사라지고 국가표준 단일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정보통신단체표준은 1997년에 단행된 정보통신표준총회의 신설을 계기로 다시 부활하며 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TTA가 제 · 개정한 단체표준은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총 7,005개에 달하며, 그 중에는 대한

민국 표준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주요 표준으로 이동통신 표준화(CDMA)를 비롯해 와이브로와 지상파DMB 등 다양한 표준들이 있다. 이들 표준은 와이브로나 지상파 DMB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으며, 번호이동성의 국내표준화나 휴대전화 외부단자 표준화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왔다.

〈연도별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및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제정 현황〉

[2008년 6월 현재]

연도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		
	제정	개정	폐지	제정	개정	폐지
~1988	0	0	0	0	0	0
1989	2	0	0	0	0	0
1990	11	0	0	0	0	0
1991	27	1	0	0	0	0
1992	34	1	0	50	14	0
1993	77	2	0	24	1	0
1994	60	0	0	102	3	0
1995	35	9	0	75	0	0
1996	80	9	0	120	12	0
1997	108	2	0	73	5	0
1998	105	14	0	0	0	0
1999	125	5	0	0	0	0
2000	528	10	0	0	0	0
2001	494	3	0	0	0	0
2002	511	152	0	0	0	0
2003	599	253	0	0	0	0
2004	354	214	0	9	0	23
2005	886	236	15	12	15	0
2006	421	250	20	0	20	0
2007	672	214	79	12	23	0
2008	491	10	27	2	12	10
계	5620	1385	141	479	105	33

또한 TTA가 제정해 온 각종 표준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산업 전반과 경제발전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3. 표준 활용실태 조사 분석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작업은 1993년 8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선순위 설문조사로 시작되었다. 당시 TTA는 표준화 중장기과제 수립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의 관련기술 표준화 항목에 대한 시급성 평가와 우선순위 및 제정시기의 설정, 투입인력 여부 등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표준화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TTA 사업 참가자 및 비참가자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표준설문지에 기업방문 개별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내용은 표준화 인식평가, 표준화대상, 시급성 등의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실태, 국내외 표준화 인지도 평가, 국내 정보통신 관련 요망사항 등이었다.

표준화 우선순위 설문조사는 이후 1999년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조사 및 TTA 웹을 통한 표준다운로드 통계분석으로 이어져 2008년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해당 년도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었지만 기본적인 목적과 조사 내용, 추진과정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조사분석은 정보통신표준의 유지보수 및 이용자 중심의 표준 제정 · 보급을 위해 공공 및 산업현장에서 정보통신 표준에 대한 활용실태 및 향후 표준화 수요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실시되었다.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및 향후 표준화수요 조사분석 항목의 도출은 표준의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 · 이용자의 TTA 표준에 대한 활용현황 및 활용형태를 조사하고, TTA 표준의 활용도 및 활용의 가치평가, TTA 표준화 활용 수요 조사, 기타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기술분야별 · 이용자그룹별 · TTA위원여부별 · 표준화위원회별 표준활용도, 표준의 활용상 애로사항 · 개선 요구사항, 이용자 그룹별 주요 관심분야 및 중점추진 필요 과제, 표준보급 및 표준화정보서비스 이용 실태, 표준의 적합성 인증 필요 분야 및 대상 시스템, 기타 표준화사업 추진에 관한 인지도 및 전망 등으로 구성되었다. TTA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개발 및 유지보수에 적

〈연도별 TTA 표준 활용실태 조사 분석 결과〉

년도	TTA표준 활용률(%)	당해 연도 활용도 상위 표준
2000년도	23.6	1위 :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표준 2위 : 해쉬함수표준 – 제2부 : 해쉬함수 알고리즘 표준(HAS-160)(ver.1998) 3위 : 1.7GHz~1.9GHz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 개인휴대통신 시스템을 위한 개인국과 기지국간 무선인터페이스 표준
2001년도	17.8	1위 :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표준 2위 : 부가형 전자서명 방식 표준 –제2부 :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 알고리즘 3위 : 해쉬함수표준 –제2부 : 해쉬함수 알고리즘 표준(HAS-160)(ver.2000)
2002년도	13.6	1위 :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표준 2위 : 정보보호기술 전문 용어 표준 3위 : 해쉬함수표준 –제2부 : 해쉬함수 알고리즘 표준(HAS-160)(ver.2000)
2003년도	51.3	1위 :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표준 2위 : 해쉬함수표준 –제2부 : 해쉬함수 알고리즘 표준(HAS-160)(ver.2000) 3위 : 해쉬함수표준 –제2부 : 해쉬함수 알고리즘 표준(HAS-160)(ver.1998)
2004년도	64.5	1위 : 2.3GHz 휴대인터넷 표준–물리계층(ver.2004.06) 2위 : 2.3GHz 휴대인터넷 표준–매체접근제어계층(ver.2004.06) 3위 :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표준
2005년도	65.9	1위 : 2.3GHz 휴대인터넷 표준–물리계층(ver.2004.12) 2위 : 2.3GHz 휴대인터넷 표준–매체접근제어계층(ver.2004.12) 3위 : 2.3GHz 휴대인터넷 표준–물리계층(ver.2004.06)
2006년도	66.0	1위 : 지상파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송수신정합 표준 2위 : 2.3GHz 휴대인터넷 표준–물리계층 및 매체접근제어계층 3위 :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송수신정합 표준
2007년도	68.3	1위 : 서비스 레벨 보증서(SLA) 기본 구조 2위 :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송수신정합 표준 3위 : SIP 호 흐름 예

극 반영하여 표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7년도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및 향후 표준화 수요조사 설문조사는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정보통신 분야 관련 422개 기업 및 기관에 종사하는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및 향후 표준화 수요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509명 중에서 68.3%인 1,190명이 TTA 표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TA는 이 같은 조사 ·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및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고, 정보통신표준 차기년도 및 중기 계획 수립 등 표준화 활동에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비활용 표준의 활용촉진 및 유지보수 대상 표준을 도출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TTA는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조사 분석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보통신 표준 보급 및 표준화기반사업(시험인증, 교육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대한민국 표준화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3절 국제표준화 활동

1. 국제표준화 활동 개요

TTA가 수행해 온 국제 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 체제의 변화를 보면 1989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기반 조성 활동과 1990년대 말까지 본격적인 국제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 활동, 2000년대 들어 IMT-2000 등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제표준 수용자에서 국제표준 제안자로 도약하는 활동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엄밀히 말하면 국제 표준화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된 것은 2000년대에 와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활동은 국제 표준화기구의 활동에 참여하며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데 머물러 있었으며, 우리 스스

• 국제 무선통신 자문위원회(CCIR) 최종회의참가 귀국보고회 | 1989.12.12